

# 천상 나는 촌여자

열네살 소녀때까지 자연 속에서 야생의 먹을 것을 구하며  
 천방지축 말괄량이처럼 살았던 나는 촌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갈현동 봉산자락에 위치한 우리집 담장 안엔 과수며 잡초와 잡화가  
 무성하다. 여편네가 집안을 썩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남편은 불만이다. 투박하지만 인정이 많고 촌사람을 좋아하는 나는  
 천성과 체질이 촌스럽게 태어나 이리도 평생을 영약하게 살지못하는가  
 생각되어질 때도 있다.



金芝娟  
 <소설가>

**나**는 촌스러운 모든 것을 좋아한다. 투박하지만 더운 인정(人情)에 눈물이 많은 촌사람이 좋고 토속적인 촌음식을 좋아하고 시골집 텃밭에 심은 싱싱한 채소들을 좋아한다.

## 산나물캐는 농촌 향취

더욱 기막히게 좋은 것은 산야(山野)에 흐트러지게 피는 야생화(野生

花)를 보는 것이고, 산나물 발나물 캐는 일과 그것의 향취를 즐기며 먹는 일이고 또한 수확 끝난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일 등을 자지러지도록 사랑한다.

내가 꿈꾸는 집은 흙과 짙을 짓이겨 벽을 만들고 무쇠 술에 장작을 태워 밥을 짓고 아궁이 깊숙이 군불을 지피고, 하얀 사발을 씻어엮는 대(竹)살강(시렁)이 있는 정죽간과 장독대 흙담장 주변으로 키 큰 접시꽃과 노란 대국과 봉선화, 분꽃을 심고, 옹달샘 가로는 담쟁이 덩굴같은 윤기 흐르는 돈짜나무를 심고 집 뒤란으로는 대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오두막 초가집이다.

거기다 사립문 입구에 키 큰 들감나무가 한그루 있고 그 가지 위에 까치집이라도 지어져 있으면 금상첨화 이리라. 뿐인가, 텃밭에는 찻쓰레한 빨간 상추와 썩갓·아욱·근대·꽃고추

심어 쪽마루에 앉아 그것들 뜯어 찬밥 한덩이를 싸서 한입 가득 우적이며 먹을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산과 계곡과 들판과 나무와 야생초들이 좋아 종횡무진 산야를 누비고 다녔었다.

허리에 동여맨 책보따리 풀어 마루에 팽개치고 그대로 들판으로 내달았다. 널따란 벌판 끝자락으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쫓아 경중경중 춤을 추기도 하고 종달새 울음소리를 온종일 흉내내면서 목이 쉬기도 했다.

썩과 나시랭이(냉이)와 달롱개(달래)와 씨뿌쟁이(썩부쟁이)·삐뿌쟁이(질경이)·비리두디(밤나물) 등 봄에 솟는 햇나물을 캐느라 밭둔덕과 논두렁을 기고, 기다란 무쇠 식칼로 배뽕구리(배추뿌리) 캐먹기, 무논에서 논고동 잡기, 못(池)가에서 우렁이·물방개 잡기, 여름이면 냇가에서 떡감기, 참외·수박·토마토·복숭아 서리, 가을이면 매뚜기 잡기, 밀서리·콩서리 모래밭의 땅콩서리 등 극성스럽게 해갈치며 돌아쳤다.

뿐만이 아니었다. 이삭줍기가 기막히게 재미있어 오뉴월의 띄약별을 등으로 받으며 까칠까칠한 보리이삭을 줍고 벼이삭을 줍고, 고구마·감자캐낸 들판에서 호미로 붉은 흙을 뒤집어 팽이날에 짜개진 고구마와 흙속에 파묻혀 남겨진 알감자를 주웠다.

수확 끝난 빈 밭에서 붉은 흙더미를 헤집어 커다란 고구마·감자를 찾아낼 때마다 나는 터질듯한 환희로 들판이 떠나가라 고향을 질렀다.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는 기분이 바로 이런 기분이라 생각하면서였다. 콩 수확 끝난 콩밭에

서 콩나물도 뽑았다.

수확때 터트려진 콩알이 흙 속에 묻혀 한소끔 비를 맞고나면 싹이 솟았다. 이듬해의 봄에도 빈 콩밭에는 콩나물이 솟아있곤 했는데, 땅 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움을 틔운 것이었다. 흙 속에서 길숨길숨 솟아있는 콩나물의 모습은 앙징스럽다 못해 신비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콩나물을 뽑다보면 주변의 습기 많은 밭두렁에 살찐 돌미나리가 깔려있음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캐는 재미 또한 전신의 숨털이 오소소 솟아오르는 것처럼 기분이 짜릿했다.

이삭을 줍는 일은, 버리는 곳에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원천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무(無)에서 유(有)를 형성하는 포만(飽滿)의 뿌듯함도 즐길 수가 있었다.

여러 형제중에서 유난히 산과 들판을 누비며 이삭줍기·나물캐기·메뚜기·고동잡기에 심취해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왕복 40리 길을 걸어다녔다)에서도 벼대궁에 메뚜기를 잡아떼어 웃고름 매듭에 걸고 오거자, 무명치마에 고동과 물방개를 싸서 새끼나 칠줄같은 끈으로 묶어 소불알처럼 덜렁거리고 집으로 들어갔었다. 그러면 가족들이 '저 아(아이)는 걸뱅이(거지)집에 시집을 가도 잘 살거다!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으니까' 할 정도였었다.

### 산촌에 살던 열네살소녀

이런 삶은 농산촌에 살았던 열네살 소녀 때까지 이어졌다. 자연 속에서 야생의 먹을 것을 구하며 천방지축 말팔량이 사내아이처럼 돌아치며 살았던 것이다.

그때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 나는 지천명의 나이를 넘기고서도 봄마다 나물캐기 흥역을 한번씩 치른다. 들판 산판을 쏘다니던 유년 소녀적 귀신이 들나물 산나물이 들을 때부터 뻗속 살속 어딘가에 숨어살다가 발작을 일으킨다. 혼자 야산을 휘돌거나 날잡아 한번쯤 산나물을 뜯으러 가지 않으면 병이 날 지경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몸 속에 자연과 동화(同化)하려는 천성의 욕망이 도사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촌스런 모든 것이 기막히게 좋고 향유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과 가깝기 때문이고 또한 이성(理性)보다 따뜻한 인성(人性)이 넘치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담장안 잡초와 함께 숨쉬며

갈현동 봉산자락에 위치한 우리 집은 손바닥만한 마당 한가운데의 채마밭(?)을 제외하고는 온통 잡풀에 야생초 투성이다.

담장 안으로는 감나무·대추나무·살구나무·버찌나무·포도나무·앵두나무 등 유실수가 빙 둘러 심겨져있고 마당 중심부의 흙을 돋군 곳에는 상추·근대·호박·꽃고추가 저절로 자란 수십그루의 봉선화와 어울려 싱그럽다.

푸른 채소밭 사이사이로 분홍색·선홍색·흰색·보라색 봉선화꽃이 다투어 만개하고 지붕 위로 올린 호박넝쿨에는 노란 호박꽃이 만발하여 흰나비, 노랑나비가 훨훨 날아다닌다.

채마밭 외는 이름도 분명찮은 갖가지 야생화와 잡풀들로 무성하다. 비듬나물도 방아잎도 명아주도 질펀하

고, 멧뺨갈 장다리꽃·붓꽃·냉이꽃·씀바귀꽃 등이 제멋대로 얼크러져 밭디딜 틈이 없다.

담장 안의 과수며 잡초와 잡화가 무성하니 벌 나비를 비롯 참새도 까치도 날아들고 매미도 극악스럽게 울어댄다.

남편은 불평이 많다. 나름대로 갈끔하게 잘 자란 잔디를 파내고 잘 전지된 향나무들을 뽑아내고 여편네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탄식한다. 그러나 나는 집안에 과수원과 채소밭과 자연의 숲을 일구어 놓았는데 무슨 섭한 소리냐고 반박한다.

이렇듯 질서없는 잡초며 나물거리며 야생화가 자연 그대로 자유(自由)스러워서 좋고, 봄(버찌·앵두), 여름(포도), 가을(대추·감), 철따라 소박한 과일꽃을 감상하고 풍성한 열매를 따먹어서 좋고, 한철 내내 청정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좋지 않으나고 거듭 역설한다. 슈퍼나 쌀가게 주인이 배달을 오면, 우리집 마당에 서서 몇번 심호흡을 하곤 '이 댁에서는 피서가지 않아도 되겠다'면서 마냥 부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스러져가는 이러한 모든 자유스럽고 촌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의 아쉬움 때문만으로 향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성과 체질이 촌스럽게 태어나고 조직되어져서 이리도 평생을 영악하게 살지 못하는가 생각되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우주여행을 하고 복제인간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더욱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나는 이러한 내 원천적인 자질이 소중스럽게 느껴지니, 천상 나는 촌사람인 것일까. ㉮